주부취업과 가계경제구조*

Wife's Employment and Family Economic Status

상명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전임강사 양 세 정

Department of Consumer and Housing Studies, Sangmyung University
Full-time instructor : Se-Jeong Yang

〈목 차〉

Ⅰ. 서 론
Ⅱ. 관련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family economic status by wife's employment. The data used in the study was taken from 1994 Expenditure Survey of Urban Families. The results showed that 33.2% of family income of employed-wife families was from wife's earnings and employed-wife families took more family income compared to nonemployed-wife families. In total expenditure, employed-wife families spent more than nonemployed-wife families. Employed-wife families spent more than nonemployed-wife families on these categories such as food away from home, rent, domestic services, clothing & shoes, education, public transportation, and miscellaneous; spent less on health care, utilities, communication, and private transportation. The amount of savings of employed-wife families was more than that of nonemployed-wife families.

Ⅰ. 서 론

여성의 취업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70년 39.3%에 불과하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매년 꾸준한 증가를 보여 1995년에는 48.3%에 이르렀다. 여성취업의 증가는 이러한 양적인 측면에서의

* 이 논문은 1997학년도 상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변화와 함께 구조적으로도 변화를 보여 전체 취업여성에서 차지하는 미혼여성의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기혼여성의 비중은 증가하여 1995년의 경우 여성취업자의 74.8%를 차지하며 이는 규모 면에서 615만 명에 이르는 수치이다(통계청, 1996a).

이처럼 주부취업의 증가는 여성에 대한 고용기회 확대,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가전제품 보급확대등에 따른 가사노동량의 감소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가 근간을 이루며, 더불어 여성의 자아실현 및 보다 나은 경제적 풍요를 추구하는 개인적 동기가 맞물려 결과되어지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부취업은 경제적 욕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생계유지' 또는 '가계 보탬'등의 이유로 주부가 취업하는 경우가 절반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통계청, 1996b).

주부취업은 결과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가계경제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주부취업에 의해 주어지는 가계소득의 양적인 측면에서의 추가 외에, 임시소득적 역할에서 점차 가계소득의 일부를 담당하는 고정소득의 의미가 커짐에 따라 가계경제에의 영향력 형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주부의 취업은 가계소득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계지출규모 및 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전업주부가계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며(양세정, 1993), 더불어 가계소득과 지출행태의 변화와 함께 이들 요소와 불가분의 관계인 저축구조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주부의 취업은 비취업상태의 가계경제구조와는 상이한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주부취업증가의 추이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외국의 경우 주부의 취업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7, 8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주부의 증가현상이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이와 관련한 몇몇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나, 취업주부가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적 분석의 수행 없이 취업주부와 관련한 지엽적 부분에 관심이 주어져왔다. 이기춘과 민현선(1992)의 연구가 주부취업에 따른 가계경제의 변화상태를 가계소득, 지출 및 저축부분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신혼기가계만을 다루었다는 점과 소득 및 지출부분 등의 세부항목부분에 대한 정교함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주부취업에 따른 가계의 경제구조의 변화를 보고자 함이며 이를 위하여 취업주부와 전업주부가계간의 경제구조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때 경제구조분석이라 함은 가계의 소득구조, 소비지출구조, 저축구조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취업주부가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움으로써 향후 관련부분의 심층적 연구를 위한 기초지식을 제공할 것이며, 동시에 주부의 취업이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이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위한 참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책입안의 입장에서는 주부의 취업증가에 의한 가계경제력 향상에 따른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예측함으로써 경제계획수립에 참조자료로 사용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결과는 취업주부가계의 자산규모 및 운영상태의 특성에 따라 이를 반영한 금융기관의 저축상품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며, 가사서비스제공, 탁아시설 확대 및 가사시간절약상품들의 개발과도 관련지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관련 선행연구 고찰

주부 취업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주제는 취업주부의 양적 증가와 함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196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이론적 연구가 수행되어졌으며, 이후 이에 관한 검증을 시도한 실증연구들이 행해져왔다. 다수의 연구들이 주부취업에 따른 가계의 소비지출의 변화를 고찰하는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몇몇 연구들은 가계소득구조 및 가계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부취업의 증가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1990년대에 들어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이 주어져 오고 있다.

1. 주부취업과 가계소비지출

주부의 취업은 가계소득의 실질적 증대를 통해 구매력의 향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정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킴에 따라 가계소비지출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주부취업에 따른 가계소비지출에의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시간절약을 위한 편의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증가이며, 둘째로는 주부취업과 관련한 취업비용을 들 수 있다(양세정, 1993).

Strober(1977)를 비롯한 많은 실증연구들에서 취업주부가계의 총지출 수준이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총가계소득이 일정할 때에도 취업주부가계의 소비성향이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된 바 있었다. Mincer(1960)에 의하면 취업주부소득은 임시소득으로 간주되어지며 따라서 Friedman의 항상소득가설에 의거할 때 이들 추가소득은 가계저축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가계에서는 저축적 성향을 지니는 내구재의 구매가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시간절약을 꾀할 수 있는 내구재소비지출에 관한 실증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일관성 있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Bryant, 1988; Reilly, 1982; Strober & Weinberg, 1977, 1980; Weinberg & Winer, 1983등).

이후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시간절약형 소비재에 대해 관심이 주어짐에 따라 주부취업과 가사노동대체상품 및 서비스의 이용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었으며, 특히 70년대 당시 미국가계의 외식비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주부취업과 외식비지출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다. 실증연구결과들의 대부분은 주부취업과 가계의 외식비지출 규모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Goebel & Hennon, 1982; Lippert & Love, 1986; Redman, 1980; Sexauer, 1979등), 반면 조리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냉동식품 등의 편의식품 사용규모와는 몇몇 연구에서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Lippert & Love, 1986; Redman, 1980).

일부 연구자들은 주부취업과 관련하여 시간절약형 재화 및 서비스사용의 소비지출에 관한 연구에 관심을 가졌으며, 이와 더불어 취업관련지출에 관하여도 함께 분석되어지기도 하였다.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간사용전략들을 실증분석한 Nickols와 Fox(198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업주부가계와 비교하였을 때 자녀양육서비스, 외식 및 일회용기저귀사용만이 취업주부가계에서 지출이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Bellante와 Foster (1984)는 주부의 취업상태와 외식, 자녀양육서비스, 가사서비스, 의복관리서비스, 이미용관리에 대한 지출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자녀양육서비스만이 취업주부가계에서 지출이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후 연구들에서도 유사하게 결과되어졌는데 Yang과 Magrabi(1989)의 연구 결과 역시 자녀양육서비스 비용만이 주부의 취업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 주부가 풀타임취업인 경우 파트타임취업인 경우에 비해 외식비지출이 많았다. Jacobs, Shipp과 Brown(1989)도 주부취업상태를 파트타임과 풀타임으로 나누어 이들의 소비지출행태를 주부취업여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몇몇 지출비목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외식, 자녀양육서비스 및 자동차관련비용 등에서 취업주부가계는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높은 소비지출규모를 보였고, 공공교통비와 자동차값 지출 등과는 무관함을 보였다. 반면 여성피복비의 경우 풀타임취업주부가계만이 전업주부가계와 비교하여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들은 주부취업과 관련하여 가계소비지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었다. Rubin, Riney와 Molina(1990)의 연구는 16개 가계지출세부항목에 대한 주부취업의 효과를 보았는데 가계소득이 $40,000이상의 중산층이상 집단에서는 모든 지출비목에 대해 주부취업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40,000이하의 집단에서는 식료품, 외식, 월세, 개인교통비등에서 취업주부가계가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비지출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Democratic Study Group(1990)은 주부취업의 가계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계소비지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가계소득이 동일한 취업주부와 전업주부가계의 소비지출 규모를 지출세목별로 비교한 결과 개인교통, 가사서비스, 자녀양육서비스, 외식, 여성피복, 월세, 교육 및 각종 보험료 등에 있어 취업주부가계의 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우리나라 관련연구를 살펴보면 주부취업의 가계소비지출에 대한 영향력이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제미경과 박명희(1993)은 도시주부의 시간절약서비스 지출과 관련요인을 분석하면서 전업주부, 전문직주부 및 비전문직주부의 영향을 포함하였다. 서울지역주부를 조사, 분석한 결과 외식, 배달음식 및 세탁서비스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옷수선과 파출부사용에 있어서는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전문직주부가계의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세정의 연구(1993)는 1990년 통계청의 도시가계연보 원자료를 사용하여 주부취업에 따른 가정소비지출에의 변화를 소득효과와 취업관련효과를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부취업에 따라 가계소득이 높아짐으로써 소비지출비목 대부분에서 소비지출규모가 컸으며, 가계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 살펴본 취업관련효과를 살펴보면 비취업가계에 비해 취업가계의 경우 식료품, 외식, 광열·수도, 가구집기·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 기타소비지출비에서 도리어 적은 규모의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춘과 민현선(1992)은 서울지역의 신혼기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취업주부가계는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총지출규모가 컸으며, 특히 피복신발비, 교통통신비, 저축에 있어 집단간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식비는 두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문숙재와 김혜연(1995)의 연구는 취업관련 가정지출비목에 대하여 취업주부의 특성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서울지역주부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을 하였는데 주부가 자영업 또는 전문직이상에 종사하는 경우 단순노무직종사자가계에 비해 배달음식 및 시장음식에 대한 지출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 주부취업이 가계수지에 미치는 효과

가정경제에 대한 취업주부의 경제적 기여는 무엇보다도 주부의 취업에 의해 가계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주부의 취업소득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Blau & Ferber, 1986; Pritchard, 1990), 이러한 취업주부의 소득은 가계의 경제적 수준을 향상시키며, 이 밖에 가구주의 실직, 질병, 사망이나 또는 이혼 같은 가정의 경제적 위기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Hefferan, 1982).

Eggebeen과 Hawkins(1990)는 1960년에서 1980년에 이르는 미국인구센서스자료를 이용하여 주부취업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이 기간동안에 미국의 실질가계소득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였으며, 이러한 추이의 주요원인은 주부의 취업소득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1970년도 이후 남편의 가구원1인당 소득증가율은 7%였으나 총가계소득은 10%의 증가율로 3%의 차이를 보였고, 특히 주부취업이 용이한 연령층인 36-55세집단에서의 차이는 5%에 이름으로써 이러한 차이들이 주부소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Democratic Study Group(1990)은 1978년과 1988년의 가계소득상태를 비교한 결과 1978년의 경우 주부소득은 총가계소득의 16.8%를 차지하였던 것이 10년 후인 1988년에는 24.4%를 보임으로써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언급하기를 이러한 주부소득은 그에 따른 취업관련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실질가계에 미치는 기여도는 다소 줄어든다고 하였다. 즉 주부소득의 48.1%만이 가계경제에 대한 순수기여분이며, 나머지 소득분은 외식비, 교통비, 피복 및 이미용비, 자녀양육비서비스 등에 의해 소모된다고 분석하였다.

Hanson(1991)은 미국의 1980-83년 소비자지출조사를 이용하여 가정의 경제적 지위를 남편의 소득을 이용하여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취업소득에 의한 취업주부의 경제적 기여를 화폐소득, 저축, 주택소유의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업주부가정에 비해 취업주부가정이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었으며, 이러한 이득은 저소득층일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주부소득에 의해 가정소득이 70%의 증가를 보였으며, 중소득층은 38%, 고소득층은 16%였다. 주부취업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후에도 저소득층의 소득상승폭은 37%로 여전히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지역의 신혼기가계를 다룬 이기춘과 민현선(1992)의 연구는 취업주부에 의한 소득이 가정소득에 기여하는 정도가 전일취업주부의 경우 161만원 중 63만원으로 38%였으며, 부분 취업 및 부업의 경우는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에서 매달적금 불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취업주부가계의 경우가 32%로 취업주부의 26%, 부분취업 및 부업의 25%보다 도리어 높았으나 적금불입액은 취업주부가계가 가장 높았다.

이현송(1996)은 통계청에서 1994년도에 실시한 사회통계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하여 주부의 취업이 가족소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부소득을 제외한 타가구원소득에 기준해 볼 때 소득이 낮을수록 주부 취업가구의 비율이 높았으며, 총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이 높을수록 주부취업가구의 비율이 높음에 따라 주부취업에 의해 가계경제상태가 상승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부취업의 영향력으로 미루어볼 때 저소득층으로부터 중위이상의 소득층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높으나 중위소득층으로부터 상위소득층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취업여성의 가구소득 기여도는 총가계소득의 3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취업여성의 기여도는 높아서 하층의 경우 주부소득이 총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1) 취업주부와 전업주부가계간의 소득규모 및 소득구조를 비교하고, 2) 취업주부와 전업주부가계간의 소비지출규모 및 지출구조를 비교하며, 끝으로 3) 취업주부와 전업주부가계간의 저축구조를 비교하였다. 소득구조는 소득출처를 중심으로 분석하게 되며, 소비지출의 경우 도시가계연보의 9대 지출비목을 기준으로 하되, 특성상 별도의 연구가 요구되는 경우 각 비목들의 세부비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끝으로 저축구조는 원자료여건상 다소 미흡하였으나 분석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취업주부와 전업주부가계간의 가계경제구조의 특성을 두 집단간의 평균수치비교를 위주로 이루어지는 본 연구는 기술통계기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두 집단간의 항목별 평균치 차이에 대한 유의수준을 검증하기 위하여 t-검증을 사용하였으며, 통계분석을 위하여는 SAS-PC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2. 자 료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1994년 도시가계연보의 기초자료(raw data)를 사용하였다. 통계청에서 매년 수집하는 도시가계연보 자료는 1963년이래 전국의 전도시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가구를 층화 및 확률비례 추출하여 소득과 비목별 소비지출에 대해 조사, 수집하고 있다. 조사방법에 있어서 비목별 지출은 가계부 기장방식을 사용하였으며, 가계소득, 가구원수, 주거상태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면접조사에 의하였다. 본 자료는 매월 전국 도시의 4,000여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전체 조사대상수가 6만여 가구에 이르나, 본 연구를 위하여는 이 중 소득자료가 있는 4만여 근로자가구를 추려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이 중 가장과 배우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따라서 근로자만을 뽑은 본 연구대상의 모든 가장은 취업가장들이었다. 또한 가장의 연령이 65세이상이거나 25세가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였으며, 가장과 배우자 이외 여타가구원이 취업상태인 경우 취업주부의 가계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끝으로 가계소득관련 및 소비지출자료가 부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제외함으로써 28,329 가구를 최종연구대상으로 사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사회인구적 특성 비교

본 연구대상은 28,329가구였으며, 이중 취업주부가계는 24.9%에 해당하는 7,056가구였다(〈표 1〉 참조). 4인 가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취업주부가계의 평균가족원 수는 3.85명으로 전업주부가계의 3.75명에 비해 다소 많았다. 가구주 교육수준의 경우 취업주부가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중졸이하가 31.0%에 달하는데, 이러한 수치는 전업주부가계의 14.9%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이다.

가구주 연령을 살펴보면 취업주부가계가 39.59세로 37.13세인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취업주부가계의 45.3%가 35-44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취업의 주요장애요인으로 알려진 취학전 아동보유여부(Hafstrom & Dunsing, 1978)는 예상대로 전업주부가계가 49.8%로 취업주부가계의 보

〈표 1〉 취업주부가계와 전업주부가계의 사회인구적 특성

(단위 : 가구수)

사회인구적 특성	전 체 가 계	취업주부가계	전업주부가계
총대상가구수	28,329 (100.0%)	7,056 (24.9%)	21,273 (75.1%)
가족인 수: 인(s.d.)	3.77 (1.00)	3.85 (1.06)	3.75 (0.98)
2인	3,007 (10.6%)	913 (12.9%)	2,094 (9.8%)
3인	7,116 (25.1%)	1,270 (18.0%)	5,846 (27.5%)
4인	13,046 (46.1%)	3,279 (46.5%)	9,767 (45.9%)
5인	3,989 (14.1%)	1,247 (17.7%)	2,742 (12.9%)
6인이상	1,171 (3.9%)	347 (4.9%)	824 (3.9%)
가구주: 국졸이하	1,812 (6.4%)	849 (12.0%)	963 (4.5%)
교육수준 중졸이하	3,560 (12.6%)	1,338 (19.0%)	2,222 (10.4%)
고졸이하	12,778 (45.1%)	2,868 (40.6%)	9,910 (46.6%)
4년대졸미만	3,114 (11.0%)	500 (7.1%)	2,614 (12.3%)
4년대졸이상	7,065 (24.9%)	1,501 (21.3%)	5,564 (26.2%)
가구주: 세(s.d.)	37.73 (8.19)	39.56 (7.77)	37.13 (8.24)
연령 25-34세	11,976 (42.3%)	2,027 (28.7%)	9,949 (46.8%)
35-44세	11,607 (37.4%)	3,197 (45.3%)	7,410 (34.8%)
45-54세	4,405 (15.6%)	1,504 (21.4%)	2,901 (13.6%)
55-64세	1,341 (4.7%)	328 (4.6%)	1,013 (4.8%)
취학전 아동보유	12,396 (43.8%)	1,723 (24.4%)	10,594 (49.8%)
자가소유여부: 자 가	12,357 (43.6%)	3,122 (44.2%)	9,235 (43.4%)
전 세	11,561 (40.8%)	2,675 (37.9%)	8,886 (41.8%)
월 세	4,411 (15.6%)	1,259 (17.8%)	3,152 (14.8%)
가구주: 관리 · 전문직	3,027 (10.7%)	630 (8.9%)	2,397 (11.3%)
직 업 기술직	4,323 (15.2%)	958 (13.6%)	3,365 (15.8%)
사무직	5,276 (18.7%)	923 (13.1%)	4,353 (20.4%)
서비스직	1,439 (5.0%)	322 (4.6%)	1,117 (5.3%)
노무직	14,264 (50.4%)	4,223 (59.8%)	10,041 (47.2%)

유율인 24.4%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취업주부와 전업주부가계간에 자가보유율은 유사하여서 각기 44.2%와 43.3%였다. 가구주 직업을 살펴보면 전업주부가계가 취업주부가계와 비교해 소위 화이트칼라직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주부가계의 59.8%의 가구주 직업이 노무직이었다.

2. 가계소득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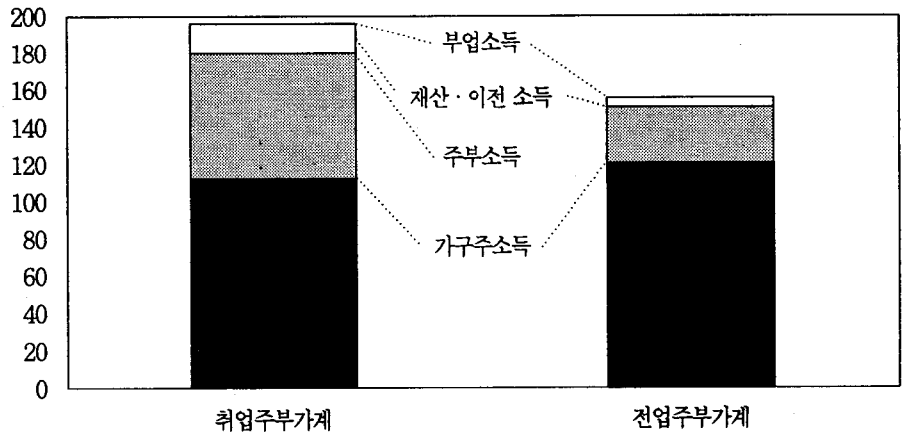
〈표 2〉에 의하면 취업주부가계와 전업주부가계간 가계소득의 구조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가계소득은 전업주부가계가 월평균 1,547,891원이고, 반면 취업주부가계는 전업주부가계 수치의 26.2%가 높은 1,953,911원이었다. 취업주부가계가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월평균406,020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수치의 차이는 전적으로 배우자소득에 의해 주어지는 차이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취업주부의 가계재원조달이라는 측면에서의 기여도를 짐작케 한다. 소득의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면 가계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취업주부가계의 경우가 92.9%

〈표 2〉 취업주부가계와 전업주부가계의 소득원천별 규모 및 구조

(단위 : 원(%))

	취업주부가계 (1)	전업주부가계 (2)	(1)-(2) (t-검증결과)
총가계소득	1,953,911(100.0)	1,547,891(100.0)	406,020**
· 근로소득	1,815,703 (92.9)	1,312,949 (84.8)	502,754**
- 가구주소득	1,166,373 (59.7)	1,312,949 (84.8)	-146,576**
- 배우자소득	649,330 (33.2)	0 (0.0)	649,330**
· 기타소득	138,208 (7.1)	234,942 (15.2)	-96,734**
- 부업소득	2,536 (0.1)	68,759 (4.4)	-66,223**
- 재산 · 이전소득	135,672 (6.9)	166,182 (10.7)	-30,510**

* p<.05 **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그림 1〉 소득원천별 규모 비교

로 전업주부가계의 84.8%에 비해 높았다. 그만큼 전업주부가계는 재산·이전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으며(10.7%), 부업소득 또한 4.4%였다. 근로소득의 경우 취업주부가계의 가구주소득은 월평균 1,166,373원으로 전업주부가계의 가구주소득인 1,312,949원에 비해 적었으나, 배우자소득이 649,330원임에 따라 총 근로소득의 규모는 전업주부가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주부가계의 주부소득은 가계총소득의 33.2%를 차지하였는데, 이러한 수치는 24.4%를 보인 미국가계(Democratic Study Group, 1990)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그림 1〉 참조).

취업주부에 의한 소득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시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표 3〉은 '주부소득이외의 소득'기준(총가계소득에서 주부소득을 제외) 및 총가계소득기준으로 분류한 소득3분위에 의한 분포표를 함께 제시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주부소득이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취업주부가계는 저소득층에 전체 집단의 42.9%가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소득층은 24.7%에 불과하였다. 한편 주부에 의한 소득이 발생한 후에는 취업주부가계의 17.6%만이 저소득층이었고, 반면 이들 집단 중 45.2%가 3/3분위인 고소득층에 속함으로써 취업주부

〈표 3〉 취업주부가계와 전업주부가계의 소득계층별 분포

〈'주부소득이외의 소득'기준 분류〉

(단위 : 가구수(%))

구 분	1/3분위 (저소득층)	2/3분위 (중소득층)	3/3분위 (고소득층)	전 체
취업주부가계	3,026	2,290	1,740	7,056
	(32.8)	(23.6)	(18.5)	(24.9)
	(42.9)	(32.5)	(24.7)	(100.0)
전업주부가계	6,203	7,404	7,666	21,273
	(67.2)	(76.4)	(81.5)	(75.1)
	(29.2)	(34.8)	(36.0)	(100.0)
전 체	9,229	9,694	9,406	28,329
	(100.0)	(100.0)	(100.0)	(100.0)
	(32.6)	(34.2)	(33.2)	(100.0)

〈'총가계소득'기준 분류〉

(단위 : 가구수(%))

구 분	1/3분위 (저소득층)	2/3분위 (중소득층)	3/3분위 (고소득층)	전 체
취업주부가계	1,245	2,625	3,186	7,056
	(12.8)	(27.8)	(34.8)	(24.9)
	(17.6)	(37.2)	(45.2)	(100.0)
전업주부가계	8,482	6,816	5,975	21,273
	(87.2)	(72.2)	(65.2)	(75.1)
	(39.9)	(32.0)	(28.1)	(100.0)
전 체	9,727	9,441	9,161	28,329
	(100.0)	(100.0)	(100.0)	(100.0)
	(34.3)	(33.3)	(32.3)	(100.0)

소득에 의한 가계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높은 상승폭을 실감할 수 있었다.

취업주부가계와 전업주부가계의 가계수지를 비교해보면 가계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의 경우 취업주부가계가 1,779,755원으로 전업주부가계의 1,394,670원에 비해 385,085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평균소비성향은 전업주부가계가 도리어 높아서 0.774이었고, 취업주부가계는 0.658이었다. 취업주부가계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에도 평균소비성향이 낮음에 따라 잉여소득에서 비롯되는 자산축적의 근간이 되는 흑자액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취업주부가계의 월평균흑자액은 608,104원으로 전업주부가계의 315,882원의 거의 배에 가까웠다. 취업주부가계의 월평균총소비지출은 1,171,651원으로 전업주부가계의 1,078,788원과 비교해서 92,863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가계소비지출구조

〈표 5〉는 취업주부가계와 전업주부가계의 지출비목별 소비지출규모를 비교한 것이다. t-검증결과에 의하면 지출비목 대부분에 대하여 두 집단간에서 지출규모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의 지출비목에 대해 취업주부가계가 전업주부가계보다 많은 규모의 지출액을 보였는데, 특히 외식, 월세, 가구집기・가사용품, 피복・신발, 교육교양오락비, 공공교통비, 기타소비지출비등에서 큰 폭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취업주부와 전업주부가계간의 소비지출규모의 비교에 있어 식료품비는 전업주부가계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나긴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반면 외식비에서의 차이는 두 집단간에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상대적으로 식사준비시간이 부족한 취업주부가계의 경우 외식에 월평균 107,789원을 지출하였으며, 전업주부가계는 85,342원으로 22,447원의 격차를 보였다. 저소득층에서의 주부취업이 여전히 활발함에 따라 취업주부가계의 월세비지출 또한 전업주부가계보다 41.53%나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가구집기・가사용품비에 대한 지출은 취업주부가계가 월평균 67,877원을 지출함으로써 전업주부가계의 54,068원보다 13,809원이 많았는데, 이중 11.164원이 이 비목의 세부비목인 가사서비스에서 비롯된 것이다. 파출부비용 및 자녀탁아서비스 등이 포함된 가사서비스의 경우 전업주부가계는 5,768원에 불과하였으나 취업주부가계는 16,932원을 매월 지출하였다. 이는 전업주부가계의 지출비용의 3배에 가까운 수치로 지출세부비목 중 두 집단간 가장 큰 폭의 차이를 보이는 지출비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가 취업을 하게 됨에 따라 직장생활을 위한 의복과 신발 등에 대한 추가지출이 예상되며, 이러한 예상은 가계의 피복・신발비지출에 반영되는 것

〈표 4〉 취업주부가계와 전업주부가계의 가계수지 비교

(단위 : 원)

구 분	취업주부가계 (1)	전업주부가계 (2)	(1)-(2) (t-검증결과)
①가계소득	1,953,911	1,547,891	406,020**
②비소비지출	174,156	153,221	20,935**
③가처분소득(①-②)	1,779,755	1,394,670	385,085**
④총소비지출	1,171,651	1,078,788	92,863**
⑤흑자액(③-④)	608,104	315,882	292,222**
⑥평균소비성향(④/③)	0.658	0.774	-0.116

* p<.05 **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5〉 취업주부가계와 전업주부가계의 지출비목별 소비지출규모

(단위 : 원)

	취업주부가계(1)	전업주부가계(2)	(1)-(2)(t-검증결과)	{(1)-(2)}/(2)×100
총소비지출	1,171,651	1,078,788	92,863**	8.61%
· 식비	336,823	317,065	19,758**	6.23%
- 식료품	(229,034)	(231,723)	-2,689	-1.16%
- 외식	(107,789)	(85,342)	22,447**	26.30%
· 주거	44,199	40,571	3,628	8.94%
- 월세	(22,857)	(16,150)	6,707**	41.53%
· 광열 · 수도	43,893	44,271	-378	-0.85%
· 가구집기 · 가사용품	67,877	54,068	13,809**	25.54%
- 가사서비스	(16,932)	(5,768)	11,164**	193.55%
· 피복 · 신발	93,662	81,211	12,451**	15.33%
- 피복서비스	(3,174)	(2,789)	385**	13.80%
· 보건의료	49,517	53,519	-4,002**	-7.48%
· 교육교양오락	180,462	148,636	31,826**	21.41%
- 교육	(119,202)	(92,750)	26,452**	28.52%
사교육	((53,391))	((39,205))	14,186**	36.18%
- 문방구	(4,127)	(2,939)	1,188	40.42%
- 교양오락	(57,134)	(52,946)	4,188**	7.91%
· 교통 · 통신	129,743	134,843	-5,100	-3.78%
- 개인교통	(74,189)	(87,114)	-12,925	-14.84%
- 공공교통	(36,612)	(28,501)	8,111**	28.46%
- 통신	(18,942)	(19,228)	-286	-1.49%
· 기타소비지출	225,475	204,604	20,871**	10.20%
- 이미용	(29,753)	(26,777)	2,976**	11.11%
- 이미용서비스	(16,902)	(14,353)	2,549**	17.76%
- 장신구	(10,272)	(7,999)	2,273*	28.42%
- 경조사	(33,402)	(28,991)	4,411**	15.22%
- 회비	(85,663)	(75,817)	9,846**	12.99%

* $p<.05$ **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으로 나타났다. 취업주부가계의 이 비목에 대한 월평균지출은 93,662원이었으며, 전업주부가계는 이보다 12,451원이 적은 81,211원이었다.

특히 사교육비의 지출에 있어 두 집단간의 격차가 컸는데 취업주부가계는 월평균 53,391원을 지출함으로써 전업주부가계의 39,205원에 비해 36.18%가 많았다. 이러한 차이는 취업주부의 경우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상으로 자녀에 대한 보충교육에 지출을 보다 많이 할애하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주부가 직장에 머무는 동안 취학아동 등에 대해 일종의 자녀탁아의 형태로 학원 등의 사교육장으로 보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다.

교통 · 통신비의 세부지출비목을 살펴보면 개인교통비와 통신비에서의 차이는 미미하였으나 직장으로의 정기적 이동에 소요되는 공공교통비에서의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취업주부가계의 이 비목에 대한 지출은 전업주부가계에 대해 28.46%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되어지는데 즉 직장으로의 이동시 자가용 이용율이 높은 미국의 경우 취업주부가계의 승용차 및 관련비용의 지출을 포함하는 개인교통비지출이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Democratic Study Group, 1990). 예측하건대 향후 주부취업이 보다 활발해지고 직종 또한 고급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부취업에 따른 개인교통비지출은 늘어날 것으로 사료된다.

기타소비지출비목 중 세부비목들은 모두 취업주부가계들이 전업주부가계들에 비해 지출이 많았다. 기타소비지출 전체로 볼 때 취업주부가계는 월평균 225,475원을 지출함으로써 전업주부가계의 204,604원에 비해 20,871원의 차이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이미용관련 및 장신구에 대한 지출이 취업주부가계가 많았으며, 또한 보다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조사비, 회비 등에 있어서도 각기 전업주부가계의 지출액에 비해 15.22%, 12.99%가량 많은 수준의 지출을 하는 것으로 결과되어졌다.

반면 보건의료비의 경우 전업주부가계의 지출이 취업주부가계에 비해 4,002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인 및 가족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한 투자시간의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결과는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와 비교되어지는데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취업주부가계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의료보험에 대한 지출은 도리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결과적으로 총괄적인 보건의료비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Democratic Study Group, 1990; Jacobs, et al., 1989).

취업주부가계는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계소득수준이 높으며, 이러한 가계소득수준의 차이는 소비지출의 규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주부의 취업상태에 의한 가계지출행태변화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출비목별 소비지출구성비를 비교해 봄으로써 지출비목간 분배상태를 통해 취업주부가계와 전업주부가계간의 지출구조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비지출을 위하여 시간자원이 요구되는 지출비목인 식료품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등의 지출구성비에 있어 전업주부가계가 취업주부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또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업주부의 경우 광열·수도비에 대한 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전화비등을 포함하는 통신비 역시 전업주부가계가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비의 지출비중은 취업주부가계가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보다 적었던 반면, 식료품비의 대체적 성격을 지니는 외식비에 대한 지출은 9.20%로 전업주부가계의 7.91%에 비해 1.29%가 높았다. 또한 취업주부가계의 월세비지출비중 또한 높아서 총소비지출의 거의 2%가량을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주부가계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소유상태를 암시한다. 앞서 소비지출규모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듯이 가사서비스에 대한 취업주부가계의 지출은 지출구성비에 있어서도 현격한 격차를 보인다. 취업주부가계는 총소비지출의 1.45%를 이 비목에 지출하는 반면, 전업주부가계는 미미한 수준인 0.53%만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복·신발비는 두 집단 모두에서 총소비지출의 7%대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취업주부가계의 경우 7.99%로 7.53%의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취업주부가계는 교육교양오락비지출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사교육비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취업주부가계의 사교육비지출구성비는 4.56%로 전업주부가계의 3.63%와 거의 1%대의 차이를 보였다.

교통비의 경우를 살펴보면 공공교통비의 경우 취업주부가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출비중을 나타내는 반면, 개인교통비는 전업주부가계가 보다 높은 지출구성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근무를 위해 규칙적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공공교통을 보다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주부의 경우 일상적이지 않은 외출이 보다

〈표 6〉 취업주부가계와 전업주부가계의 지출비목별 소비지출구성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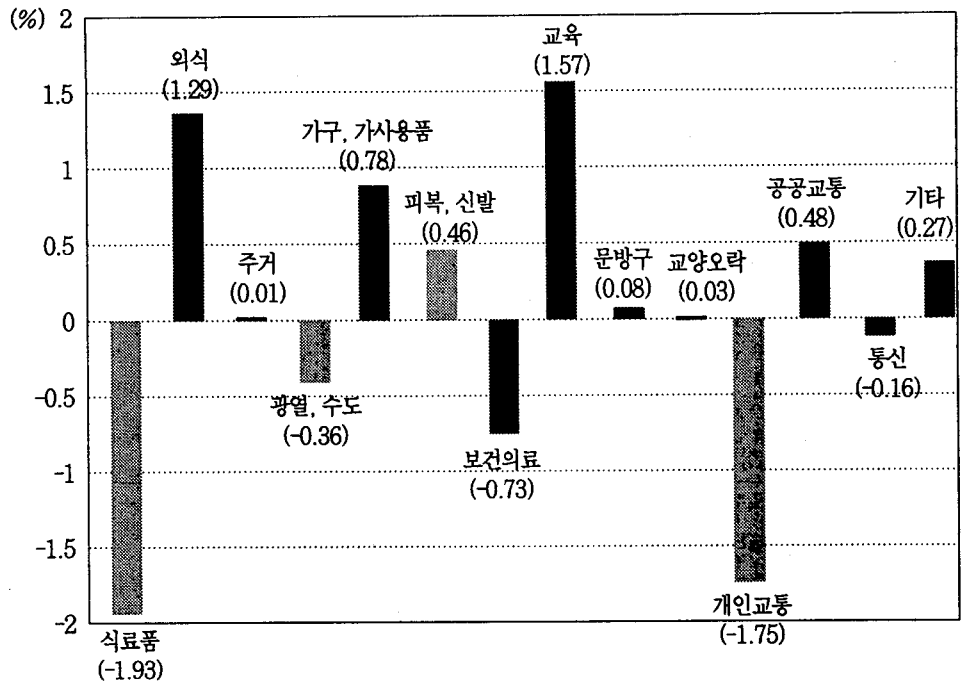
	취업주부가계(1)	전업주부가계(2)	(1)-(2)(t-검증결과)	{(1)-(2)}/(2)×100
총소비지출	100.00	100.00		
· 식비	28.75	29.39	-0.64**	-2.18
- 식료품	(19.55)	(21.48)	-1.93**	-8.99
- 외식	(9.20)	(7.91)	1.29**	16.31
· 주거	3.77	3.76	0.01	0.27
- 월세	(1.95)	(1.50)	0.45**	30.00
· 광열 · 수도	3.75	4.10	-0.35**	-8.54
· 가구집기 · 가사용품	5.79	5.01	0.78**	15.57
- 가사서비스	(1.45)	(0.53)	0.92**	173.58
· 피복 · 신발	7.99	7.53	0.46**	6.11
- 피복서비스	(0.27)	(0.26)	0.01	3.85
· 보건의료	4.23	4.96	-0.73**	-14.72
· 교육교양오락	15.40	13.78	1.62**	11.76
- 교육	(10.17)	(8.60)	1.57**	18.26
사교육	(4.56)	(3.63)	0.93**	25.62
- 문방구	(0.35)	(0.27)	0.08*	29.63
- 교양오락	(4.88)	(4.91)	-0.03**	-0.61
· 교통 · 통신	11.07	12.50	-1.43**	-11.44
- 개인교통	(6.33)	(8.08)	-1.75**	-21.66
- 공공교통	(3.12)	(2.64)	0.48**	18.18
- 통신	(1.62)	(1.78)	-0.16**	-8.99
· 기타소비지출	19.24	18.97	0.27	1.42
- 이미용	(2.54)	(2.48)	0.06	2.42
- 이미용서비스	(1.44)	(1.33)	0.11**	8.27
- 장신구	(0.88)	(0.74)	0.14**	18.92
- 경조사	(2.85)	(2.69)	0.16*	5.95
- 회비	(7.31)	(7.03)	0.28*	3.98

* $p<.05$ **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많음에 따라 개인교통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일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기타소비지출의 경우 두 집단에 있어 회비와 경조사비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두 비목 모두에 있어 취업주부가계가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보다 높은 지출구성비를 보였다. 이 밖에 이 · 미용서비스와 장신구에 있어서도 각기 0.11%와 0.14%의 차이로 취업주부가계가 보다 높은 지출구성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취업에 따라 지출구성비가 늘어나는 지출비목이 있는 만큼 감소하는 비목도 있었다. 지출구성비가 줄어드는 비목들은 소비지출을 위한 시간소요를 요구하는 것들이었다. 주부의 취업은 집에 머무는 시간을 적게 하며, 이에 따라 광열 · 수도비 및 통신비의 지출구성비가 전업주부에 비해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교양오락과 보건의료 등과 같이 생활유



〈그림 2〉 지출비목별 소비지출구성비 차이 비교
(취업주부가계 지출구성비-전업주부가계 지출구성비)

지를 위한 필수재적 성향의 지출항목이 아니면서 소비행위를 위해 시간이 요구되는 지출비목의 경우 취업주부가계의 지출구성비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주부의 경우 시간 및 체력부족으로 인하여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원들을 위해서한 교양오락에 소비지출을 초래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며, 또한 마찬가지 이유에 의해 본인을 포함한 가족원들의 건강관리에 소홀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일본취업주부가계와의 가계수지 비교

우리나라 취업주부가계의 가계수지에 대한 평가를 위해 우리와 동일문화권이면서 선진국인 일본의 취업주부가계와의 가계수지를 비교하였다(〈표 7〉 참조). 양국의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비교하였을 때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가계의 근로소득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일본은 총가계소득의 96.7%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92.9%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남편소득의 비중이 현격히 낮았는데 총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남편소득의 비중이 59.7%에 불과하였는데 이러한 수치는 일본의 73.7%와 비교되는 수치이다. 반면 우리나라 배우자소득의 비중은 총가계소득의 33.2%로 상대적으로 23.0%인 일본에 비해 높았다. 특히 우리나라 취업주부가계는 재산·이전소득이 높아서 일본은 3.1%에 불과하였는데 우리나라는 배가 넘는 수치인 6.9%였다.

두 나라간의 평균소비성향은 우리나라가계가 65.8%로 68.7%인 일본에 비해 2.9%가 낮게 나타났다. 소비지출 세부항목에 대한 지출구성비를 비교하여보면 양국간의 지출분배방식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우리나라가계는 식비, 가구집기·가사용품,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비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특히 외식비의 경우 한국취업주부가계는 총소비지출의 9.20%를 지출한 반면, 일본의 경우 4.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우리나라취업주부가계의 높은 외식비 비중이 단지 식사준비시

〈표 7〉 한국과 일본취업주부가계의 가계수지 비교(1994년)

(단위 : %)

	한 국(1)	일 본(2)@	(1)-(2)
총가계소득	100.0	100.0	0.0
· 근로소득	92.9	96.7	-3.8
- 남편소득	(59.7)	(73.7)	-14.0
- 배우자소득	(33.2)	(23.0)	10.2
· 기타소득	7.1	3.3	3.8
- 부업소득	(0.1)	(0.2)	-0.1
- 재산 · 이전소득	(6.9)	(3.1)	3.8
평균소비성향	65.8	68.7	-2.9
총소비지출	100.00	100.00	
· 식비	28.75	22.88	5.87
- 식료품	(19.55)	(18.19)	1.36
- 외식	(9.20)	(4.68)	4.52
· 주거	3.77	6.55	-2.78
· 광열 · 수도	3.75	4.95	-1.20
· 가구집기 · 가사용품	5.79	3.54	2.25
· 피복 · 신발	7.99	6.50	1.49
· 보건의료	4.23	2.35	1.88
· 교육교양오락	15.40	18.10	-2.70
- 교육비	(10.17)	(7.69)	2.48
- 교양오락	(5.23)	(10.41)	-5.18
· 교통통신	11.07	11.07	0.00
- 개인교통	(6.33)	(6.97)	-0.64
· 기타소비지출	19.24	24.05	-4.81

* $p<.05$ **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자료 : 통계청(1995). 도시근로자 가계조사에 의한 맞벌이 가구의 가계수지(보도자료).

간의 시간절약이라는 측면 외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계의 외식비지출에 대한 과도한 지출을 반증한다. 반면 일본취업주부가계는 교양오락비지출이 10.41%에 이르러 우리나라가계의 5.23%와 큰 격차를 보였으며, 기타소비지출에도 높은 지출비중을 나타내어 총소비지출의 24.05%를 이 비목에 지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19.24%와 많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5. 가계저축 및 주택부금[1)]

〈표 8〉은 취업주부와 전업주부가계의 저축 및 주택부금에 관한 비교를 제시한다. 저금을 비롯한 보험, 계 등의 저축관련비목에 있어 취업주부가계가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나타냈다. 금융기관에 대한 월평균저축액은 취업주부가계가 많아서 947,703원이었으며, 전업주부가

1) 여기서의 주택부금은 도시가계연보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토지, 주택임차, 매입을 위해서 빌린돈 및 융자받은 금액에 대한 월부금 또는 상환금을 의미함.

〈표 8〉 취업주부가계와 전업주부가계의 저축 및 주택부금

(단위 : 원)

	취업주부가계(1)	전업주부가계(2)	(1)-(2) (t-검증결과)	{(1)-(2)}/(2)×100
· 저 금	947,703	789,891	157,812**	19.98%
· 보 험	98,132	71,109	27,023**	38.00%
· 계	81,478	55,692	25,786**	46.30%
· 증 권	7,806	7,212	594	8.24%
· 주택부금	40,308	24,191	16,117**	66.62%

* p<.05 **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계는 789,891원으로 157,812원이 적었다. 장래의 안전성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의 경우 취업주부가계의 평균치가 전업주부가계평균치보다 38.00%가량 높게 나타남으로써 금융기관저축의 19.98%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한편 저축항목 중 사금융인 계불입금액에 있어 취업주부와 전업주부가계간의 격차가 가장 높게 나타나 전업주부가계금액의 46.30%를 초과하는 금액을 취업주부가계는 계불입에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지불하는 주택부금의 금액은 취업주부가계가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무려 66.62%가 많은 40,308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결과되어졌다. 이는 많은 취업주부들이 주택마련자금과 관련하여 취업을 하는 사후적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Ⅴ.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주부취업이 가계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취업주부가계와 전업주부가계의 경제구조상태를 소득구조, 소비지출구조 및 저축구조로 나뉘어 비교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주부가계는 전체가계의 24.9%를 차지하며 이들의 특성을 전업주부가계와 비교하면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낮고 연령은 많으며, 월세거주비율이 높았다. 가구주 직업은 취업주부가계가 노무직 종사비중이 높았으며 취학전 아동보유비율은 전업주부가계가 취업주부가계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둘째, 취업주부가계의 총가계소득은 1,953,911원으로 전업주부가계의 1,547,891원에 비해 많았다. 소득원천을 살펴보면 취업주부가계의 경우 총가계소득중 33.2%인 649,330원이 주부소득에서 비롯되며, 반면 전업주부가계는 재산·이전소득 및 부업소득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셋째, 취업주부가계의 총소비지출은 1,171,651원으로 전업주부가계의 1,078,788원보다 다소 높았으며 평균소비성향은 0.658로 전업주부가계의 0.774에 비해 도리어 낮았다. 지출비목별로 살펴보면 취업주부가계가 외식, 월세, 가사서비스, 피복·신발, 교육, 공공교통, 기타소비지출에 대한 지출이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의료, 광열·수도, 통신, 개인교통비등의 지출은 적었다.

넷째, 취업주부가계의 저금은 947,703원으로 전업주부가계의 789,891원에 비해 많았으며, 보험, 계불입금액에 대해서도 취업주부가계의 불입액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매달 지출하는 주택부금은 취업주부가계가 40,308원으로 전업주부가계의 24.191원에 비해 66.62%가 많았다.

본 연구결과에 의거하여 주부취업과 가계경제구조와 관련한 시사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취업주부가계의 사회인구적 특성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취업주부의 다수가 여전히 생계유지 또는 가계 보탬을 위한 경제적 이유에 의한 취업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남편소득 및 기타자산소득수준이 낮았으며, 가구주의 교육수준 및 직업의 사회적 지위 또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월세가구에 거주하는 비중 또한 높은가하면 매달 지출하는 주택부금의 규모도 취업주부가계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평가됨으로써 주부취업상태와 주택관련 자금과의 밀접한 관계를 시사한다. 이러한 점은 향후 주부의 취업결정요인을 고려하는 연구를 통해 보다 정밀한 검토가 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주부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거론되는 취학전 아동보유비율의 경우 취업주부가계가 24.4%에 불과하여 전업주부의 49.8%의 절반에 불과함으로써 취학전 아동보유에 따른 주부취업의 어려움을 반증한다.

우리나라 취업주부들은 여전히 저소득층에서 경제적 이유에 의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며, 이러한 취업동기는 주부의 추가소득에 의해 가정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소득의 총가계소득에 대한 기여율은 33.2%로 미국취업주부의 기여도인 24.4%(1988년 자료: Democratic Study Group, 1990) 및 일본의 23%(1994년 자료; 통계청, 1995)에 비해 높은 수치였다. 이러한 높은 기여도에 의해 취업주부가계는 가구주소득이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총가계소득에서는 406,020원이 높아짐으로써 경제생활의 질적 향상을 성취하였다.

취업주부가계는 전업주부가계에 비교했을 때 자산축적의 원천이 되는 흑자액의 규모가 거의 배에 이르며, 총소비지출액이 두 집단간에 적은 차이를 보임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은 총가계소득이 많은 취업주부가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부가 취업을 함으로써 취업관련비용 및 가사노동에 대한 시간절약을 위한 편의품 및 서비스지출에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소비성향이 증가하리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주부의 주요 취업요인이 가계경제에의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니 만큼 주부소득의 사용이 취업의 편의를 위한 소비지출에 사용되어지기보다는 향후 주택구입 등을 목표로 자산축적의 사용에 보다 매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된다.

1994년 자료를 사용한 본 연구는 4년 전 자료를 사용한 양세정(1993)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취업주부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거의 유사한 66%를 보였으나 지출비목별 내용에 있어서는 변화를 보였다. 선행연구의 경우 외식, 가구집기·가사용품(가사서비스), 피복·신발비등 주부취업비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선택재적 성격을 갖는 지출비목에 대해 두 집단간 차이가 없었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이들 비목에 대해 취업주부가계의 지출규모 및 구성비에 있어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취업주부들이 점차 취업에 필요하거나 취업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비목에 대해 지출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변화이며, 이러한 주부본인의 입장에서의 긍정적 변화는 앞으로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료품과 외식비지출에 대해 살펴보면,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취업주부가계의 식료품비 지출규모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외식비 지출은 현격히 증가한다. 반면 지출구성비에서는 식료품비 지출구성비는 감소하고 외식비의 지출구성비는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식비 내에서의 두 지출항목간에 대체재적 성향을 가짐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즉 식사준비시간을 줄이기 위해 외식의 빈도가 잦아지고 이에 따라 식료품비의 지출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한편 취업주부가계의 식료품비 지출규모 또한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적음은 식사준비가 상대적으로 소홀함에 따른 효과도 함께 포함되어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가계 식비 내에서의 식료품비와 외식비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는 작업이 요망된다.

세부항목 중 가사서비스에는 파출부사용 및 자녀탁아비용 등이 포함되어진다. 선행외국연구들에서도 결과되어졌듯이 이들은 주부의 취업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목으로 검증된 바 있다(Bellante & Foster, 1984; Jacobs, Shipp & Brown, 1989등).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가사서비스에 대한 지출규모는 취업주부가계가 전업주부가계의 거의 3배에 가까운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탁아비용이라는 주부취업에 따른 절대경비의 존재를 의미하며, 그만큼 취학전 자녀를 보유한 경우 주부취업의 어려움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지출항목의 분류와 함께 분석이 요망되며, 정확한 산출을 통해 주부의 취업비용으로 세제혜택 등에 포함함으로써 주부취업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취업주부가계의 높은 사교육비지출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취학아동들을 탁아의 방편으로 학원등 사교육장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방과후 학교운영 등에 대한 정책대안의 자료마련이 요망된다.

취업주부가계가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높은 지출성향을 보이는 지출항목은 취업관련비용 또는 가사노동시간절약을 위한 재화 및 서비스에 지출되어지는 부분들이었다. 이에 반해 지출구성비상으로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지출비목은 선택재적 성향이 강하면서 소비지출을 위해 별도의 시간이 요구되는 항목들이었다. 즉 대표적인 것으로 교양오락비나 보건의료비를 들 수 있다. 보건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보건의료비의 경우 취업주부가계가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식료품비에 대한 외식비지출의 증가와 함께 주부의 시간부족이 가족들의 건강상태와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또한 광열·수도비와 통신비의 경우 주부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적음에 따라 지출이 적어지는 비목이었다. 그러나 통신비의 경우 앞으로 개인휴대통신 등의 발달과 함께 취업주부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비목에 대한 지출형태는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유사한 변화추이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비목으로 교통비를 들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취업주부가계의 공공교통비지출이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개인교통비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국의 경우에서처럼 통근용 자가용의 사용이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이 두 비목간의 지출행태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향후 주부취업이 가계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주부취업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보다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주부취업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취업주부의 특성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주부취업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양적, 질적으로 변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연구의 지속적인 follow-up은 이와 관련한 각종 정책마련의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도 필수적이다. 특히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주부취업상태에 관해 직종별 또는 취업유형별로의 세분화작업이 요구되어지며, 본 연구가 취업주부가계와 전업주부가계의 가계경제상태에 대해 단순비교를 한 자료제공위주의 연구였다면, 취업상태의 순수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통계기법의 적용 또한 다음 연구에서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문숙재·김혜연(1995). 취업주부의 취업관련 지출과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39-53.
2) 양세정(1993). 주부의 취업이 가정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4(2), 17-28.
3) 이기춘·민현선(1992). 도시신혼가계의 주부취업과 경제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9(4), 107-120.
4) 이현송(1996). 기혼여성의 취업과 가족 소득의 관계. *Working Paper*.
5) 제미경·박명희(1993). 도시주부의 시간절약서비스 지출과 관련요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 1-13.
6) 통계청(1995). *도시근로자 가계조사에 의한 맞벌이 가구의 가계수지*(보도자료).
7) _____(1996a). *1996한국의 사회지표*.
8) _____(1996b). *사회통계조사*.
9) Bellante, D. & Foster, A.C.(1984). Working wives and expenditure on servic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1, 700-707.
10) Blau, F.D. & Ferber, M.A.(1986). *The economics of women, men, and work*.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1) Bryant, W.K.(1988). Durables and wives' employment yet agai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5, 37-47.

12) Democratic Study Group(1990). *They didn't come to the party: A tough decade for families in the middle*(Special Report No. 101-32). Washington, D.C.: U.S. House of Representatives.

13) Eggebeen, D.J. & Hawkins, A.J.(1990). Economic need and wives' employ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11(1), 48-66.

14) Goebel, K.P. & Hennon, C.B.(1982).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among wife's employment status, stage in the family life cycle, meal preparation time, and expenditures for meals away from home.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6, 63-78.

15) Hafstrom, J. & Dunsing, M.(1978). Socioeconomic and social psychological influences on reasons wives work.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December), 169-175.

16) Hanson, S.L.(1991). The economic costs and rewards of two- earner, two-parent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633-634.

17) Hefferan, C.(1982). Workload of married women. *Family Economic Review*(3), 10-15.

18) Jacobs, E., Shipp, S. & Brown, G.(1989). Families of working wives spending more on services and nondurales. *Monthly Labor Review*(Feb), 15-23.

19) Lippert, A. & Love, D.O.(1986). Family expenditures for food away from home and prepared foods. *Family Economics Review*(3), 9-14.

20) Mincer, J.(1960). Employment and consumption. The Review of Ecnomics and Statistics *American Economic Review* 50(2), s74-83.

21) Nickols, S.Y. & Fox, K.D.(1983). Buying time and saving time: Strategies for managing household produc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0, 197-208.

22) Pritchard, M.(1990). The value of the second income to two-earner families with children. *Lifestyles: Family Economic Issues* 12, 127-141.

23) Redman, B.J.(1980). The impact of women's time allocation on expenditure for meals away from home and prepared food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62, 234-237.

24) Reilly, M.D.(1982). Working wives and convenience consump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8, 407-418.

25) Rubin, R.M., Riney, B.J. & Molina, D.J.(1990). Expenditure pattern differentials between one-earner and dual-earner households: 1972-1973 and 1984.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7, 43-52.

26) Sexauer, B.(1979). The effect of demographic shifts and changes in the income distribution on food-away-from-home expenditure.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61, 1046-1057.

27) Strober, M.H.(1977). Wives' labor force behavior and family consumption patterns. *American Economic Review* 67(1), 410-417.

28) _____ & Weinberg, C.B.(1977). Working wives and major family expenditur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 141-147.

29) Weinberg, C.B. & Winer, R.S.(1983). Working wives and major family expenditures: Replication and extension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0, 259-263.

30) Yang, S. & Magrabi, F.(1989). Expenditures for services, wife's employment, and other household characteristics.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18(2), 133-147.